

불자 세상보기



최응렬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지난 달 18일 의정부에서 전철 바다에 침을 빨는다고 항의하던 사람과 승객들에게 커터 칼을 꺼내 휘두른 사건과 같은 달 22일 여의도 레싱턴호텔 부근에서 전 직장 동료와 행인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언론에서는 어떠한 계기로 '묻지마 범죄'란 표현을 사용하는지 의아하다. 심지어 '묻지마 범죄'를 '선진국형 범죄'라고 표현하는 전문기도 있다.

이들 사건이 동기가 불명확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자세히 사건의 개요를 분석해 보면 전혀 동기가 없는 것도 아니

다. 병에 대한 진단이 정확해야 치료도 쉽듯이, 범죄의 원인이 정확하게 찾아야 맞춤형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1999년 컬럼바인 고등학교 총기난사 사건이라든가 2007년 버지니아 공대 총기난사 사건, 그리고 2008년 6월 일본에서 발생한 '도리마 살인사건' 등의 예를 들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총기난사 사건은 우리나라에서도 1982년 4월 26일 우법군 순경에 의해서 경남 의령군 공류면에서 자행된 바 있다. 당시 사건으로 56명이 숨졌고, 3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일련의 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냉철한 시각으로 진단하고, 진단된 결과에 따른 대응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의정부 사건의 경우 전동차 바다에 침을 빨을 때 옆에 있던 피해자의 손등에 침이 튀자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와 시

'묻지마 범죄'는 없다

비가 불으면서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까지 화가 미친 사건이고, 여의도 사건의 경우도 퇴사한 직장에서 가해자를 왕따 시켰던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두 사건 모두 명백한 동기가 있다.

이를 '묻지마 범죄'로 진단하다 보니 좌절된 분노를 불특정 다수에게 화풀이 수단으로 행해진 사건으로 진단하고 있다. 전혀 맞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이들 사건은 가정, 학교, 사회, 국가가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성 계발'에 등한시한 결과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왕따의 문제는 초·중·고에 서나 발생하는 문제로 치부했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직장생활에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여의도 사건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공부에만 매달리게 할 것이 아니라 '사회성 계발'을 위해 가정, 학교, 사회, 국가가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

스럽게 익힐 수 있었던 사회성 훈련을 지금은 좀처럼 배울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주류 집단에 어울리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게임에 빠지거나 외톨이로 지내면서 사회성을 계발할 기회마저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성 계발은 경찰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죄사건이 발생하면 도대체 경찰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경찰의 탓으로 돌리기 일쑤다.

과연 경찰만의 책임인지도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물론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늦장 출동하여 사태의 악화를 막지 못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응당 경찰이 져야 할 것이다.

물론 억울된 분노를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는 분출구의 마련과 상담과 치료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야만 지금 우리가 원하는 '묻지마 범죄'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부대중 칼럼

'풍경소리'가 종교선전물이라고?

최근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풍경소리와 기독교계의 사랑의 편지 게시판을 철거하겠다는 연락이 왔다.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철거의 근거로 내세운 것은 크게 두가지다. 지난 1월부터 활동한 지하철 환경개선 시민 개혁단에서 도출한 종교부작용 정비 의견과 두 단체의 게시판 운영이 종교적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철거해야 한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철거 지시 등이다.

그리고 열차 이용 환경 시민 의견 조사를 시민들이 지하철 이용 중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선교행위에 종교관련 부착물까지 포함시켜 열차 내에서 안하무인으로 '불신지옥'을 외치는 선교활동과 풍경소리의 활동을 도매금으로 치부하고 있다.

풍경소리는 자비와 평화가 넘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작은 힘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서원하며 활동하는 비영리단체이다.

는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휴식에 기여함으로써 지하철이라는 답답하고 황량한 공간의 청량제 역할을 해 온 것을 서울시는 간과하고 있다.

풍경소리는 특정종교의 선전이나 일반대중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직된 종교관을 강요하는 일을 해 본 적이 없다. 단지 불교단체에서 운영한다는 이유로 선교행위로 분류하는 행정절차의 경직된 사고를 경계한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설교하셨던 적이 있다 "사람이 고귀하고, 천함은 그 출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풍경소리와 사랑의 편지의 활동도 특정종교의 것이라는 선입견이 아니라 그 내용으로 판단되는 열린 마음, 열린 사고의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



이용성 (풍경소리 사무처장)

발언대

내 삶의 오아시스 '풍경소리'

삭막한 지하철의 문화 아이콘 '풍경소리'가 서울시의 지하철 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철거될 위기에 처했다. 이는 같은 취지로 운영되는 개신교의 '사랑의 편지'도 마찬가지다.

<ID wonderful> 지하철타면서 즐겨보는 코너이며 글귀마다 가슴에 와 닿습니다. 평안을 찾는 삶을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ID 한마음>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글 읽는 재미가 있어서 좋았어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철거는 반대합니다.

<ID remember2009> 가끔 지하철 탈때면 새로운 글귀는 새로 산 구두처럼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종교적이기보다는 시끄러운 지하철역 내에서 잠깐의 명상의 시간입니다.

<ID 김광영> 풍경소리는 지하철뿐만 아니라, 학교 학생들에게도 교양교육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철거해서는 안됩니다.

<ID moo> 철거를 결정하신 관계자분들은 평소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풍경소리나 사랑의 편지를 읽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수많은 광고 흥수 속에서 샘플처럼 들쭉거리던 군데 군데 피어 있는 그 글들을 보면 그 삭막하고 피곤한 지하철 공간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실텐데요. 쾌적함을 방해하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ID bbangju> 출퇴근시간, 지친 심신을 잠시 눈 돌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묻지마 범죄가 빈번한 요즘, 사랑의 편지와 풍경소리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삶의 오아시스입니다.

社說

구멍뚫린 조계종 감사 기능

조계종 사찰에서 또 횡령사건이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제 15교구본사 통도사 말사인 밀양 표충사 주지 J스님이 사찰 소유 토지를 종단 승인 없이 불법매각 하고 해외로 도주한 것이다.

J스님이 불법 매각한 토지는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소재 표충사 소유의 땅으로 토지 규모도 7만 8천여평에 이른다. 이는 매매 감정가가 약 35억 원 상당 규모로 큰 액수다.

통도사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찰운영 현황 파악을 비롯해 토지매매 관련 등 모든 사항에 대해 조사중이다.

결국, 이렇게 됐다. 서초구 사랑의 교회 신축 공사를 위한 공공도로 점유가 결국 법정으로까지 가게 됐다.

'서초구 사랑의교회 건축허가 등 주민감사청구 준비위원회'는 8월 29일 서초구가 '사랑의 교회' 측에 도로 지하 1000여㎡의 점용허가를 내준 것은 무효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으로 지하점용 허가가 인정된다면 선례를 남기는 일이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되지만, 지하점용이 취소돼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현재 사랑의 교회는 지하 건물 공정을 80%, 전체 공사는 20%가 진행되고 있다.

이 무효 또는 취소되거나 사랑의 교회 건축 허가처분이 취소될 경우, 원상회복 비용이 문제가 될 공산이 크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서해원 편집인: 박해일 인쇄인: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 (02)2004-8200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해천법사.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작대기風水. 풍수지리는 자연現象이다. 풍수의 낭만(浪漫)은 온화한 들만의 조화로운데 있다. 들만이 어디 그냥 들만이겠는가? 그 속의 그림을 감상할 수 없다면 어떻게 재미를 느끼며 자연을 논할 수 있단 말인가?

사주풀이의 법수. 21c 자평 명리학의 신화... 자평 명리학의 신화... 나의 이력서며 전생기록이며 미래의 설계도인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고자 하신 사람들은 방향하고 있다.